조계종 "산재 없는 세상 발원" 추모 위령재

글=임은호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는 매년 2000명. 올해도 상반기에만 1120명, 하루 여섯 명 꼴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귀한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위령재에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겼다.

위령재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노동현장 사망 노동자를 비롯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천도의식으로 진행됐다. 영단에는 94명의 국내 노동자와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등에서 온 50명의 이주노동자 등 14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이날 위령재는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동시에 조계종이 국민의 편에 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천도법문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부처님 자비 아래 무거운 슬픔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도 다짐하며 "조계종은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지키는 종단으로서 산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의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의 추모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계의 목탁'이라고 했다.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고 강조한 스님은 "한 사람의 노동이 누군가의 밥이 되고, 안전이 되고, 일상이 된다. 생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이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40여 명의 희생자 위패 앞에 헌화하며 안전한 일터를 염원했다.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봉행
이주노동자 등 140여 명 위패 모셔
김민석 국무총리·30여 유가족 동참
진우 스님 "생명 앞선 이윤 없어"
"약자에 자비 시선 놓지 않겠다"

정부를 대표해 위령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약속하고 노동자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며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 양측의 참여를 통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희생 영가들의 넋을 달래는 어산종장 동환 스님의 절절한 '화청염불'이 울려퍼지는 동안 영정 앞에 선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고 강태완 씨의 어머니 앵크 자르칼 씨는 유족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국내·이주노동자, 과로와 작업 중 얻은 질환으로 사망한 영혼들이 사고 없고 안전하고 가족과 이별 없이 위험의 외주, 이주가 사라진 세상인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게 해 달라고 염원했다.

이날 위령재는 희생자들의 위패와 종이 옷을 불로 태워 영혼을 보내는 소전 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위령재에 앞서 진우 스님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에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위령재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도 크다"면서 "먼저 가신 분들은 극락왕생을 해야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은 빨리 치유가 돼 먼저 가신 분들의 인생까지 잘 갈무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토끼몰이식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희생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부 뚜안 씨의 사연을 듣고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부 뚜안 씨는 계명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숨어 있다가 탈진해 추락사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법무부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이를 위해서 단속 업무를 법무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마련된 유가족 면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하다 희생을 당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통감했다. 진우 스님이 "정부에서 세심히 살펴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자 김 총리는 "일을 하다 희생된 것은 나라가 할 도리를 다 못해 그런 것이므로 국가 책임"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것도 참 아픈데, 이런 일을 없애고 해결하기 위해 유가족이 모인 것은 큰 결심이었을 것"이라면서 "노동부 장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계에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총리는 "산재 문제에 대해 위령재 등 불교계가 앞장서 관심을 가져 주니 감사하다"면서 "정부도 함께 하나하나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한을 김 총리에게 전달하며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무겁게 받아들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에게 전달된 서한에는 총리 면담 요청,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및 이주정책 전환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령재에서 극락왕생을 바라는 천도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과 담마끼띠 스님이 위패를 들고 소전의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위령재에 앞서 진우 스님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한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동화사 주지에 선광 스님 "변화 시발점"

11월 19일, 임명장 수여
"대구·경북불교 발전 견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왼쪽)이 11월 19일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림 해제' 사태로 혼란을 겪어 온 동화사의 신임 주지에 선광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지난 14일 산중총회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후보에 선출된 선광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동화사는 그간 지난한 난관이 많았으나, 선광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아 전법 포교의 모범이 되고 선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종도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정진하겠다. 대구·경북 불교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식 후 선광 스님은 "앞으로 동화사가 여법한 수행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구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수행복지기금 마련 등을 통해 스님들이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원칙을 지키되 대중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동화사가 새롭게 변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조계사에서 수계했다. 16·17대 중앙종회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조계사 총무국장, 동화사 총무국장, 호압사·안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중앙종회 역사왜곡·종교편향특별위원장,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승가교육위원장에 금강 스님

11월 17일, 첫 회의서 만장일치로
진우 스님, 위원 9명 위촉장 수여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사진)이 조계종 3원 통합 후 재발족한 승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됐다. 승가교육위원회는 △승가교육 계획 수립 및 개편 △교재 개발 및 역경 등 조계종단의 교육관련 주요 사항을 연구·기획하는 기구다.

11월 17일 새롭게 위촉된 조계종 승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전법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금강 스님을 만장일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강 스님은 "총무원, 종회 등과 서로 소통해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장 선출에 이어 위원회 운영의 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특히 △출가자 △교육기관 △사찰승가대학·대학원 학인 및 상주교수 △고시 등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 검토 후 교육과정 개편과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 검토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신규 승가교육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승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교육부장 유정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고운사 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송광사승가대학장 연각 스님, 수계교육 운영위원 지성 스님,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오 스님이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11월 16일까지 2년이다. 임은호 기자

圓 寂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金山堂 道永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金山堂 道永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69(2025)年 11月 20日(陰 10月 1日) 午前 05時 20分에 法臘 65年, 歲壽 84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一同 合掌

■ **焚香所**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永訣日時** : 佛紀2569(2025)年 11月 24日(陰 10月 5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茶毘場** : 母岳山 金山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母岳山 金山寺 (063)548-4441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金山堂 道永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